



여기에 모인 우리 | 찬송가 620장

1.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3.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 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후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지켜 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하여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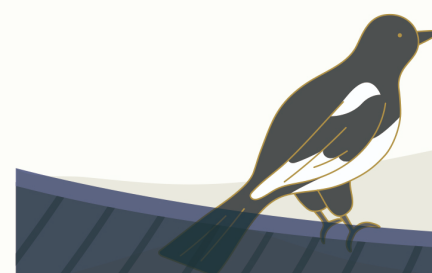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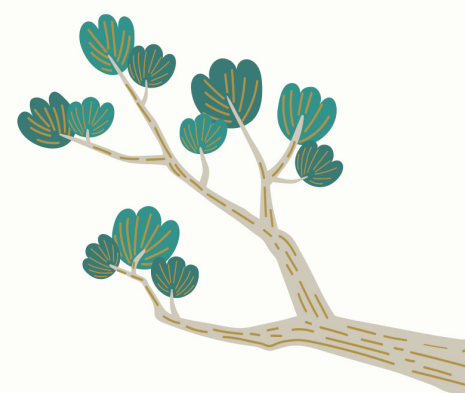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찬송가 430장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 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024 설 가정예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620장

기 도 | 가족 중 한 분

사랑의 하나님, 갑진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한 일들이 가득 넘쳐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 누리는 값진 한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말씀 | 시편 133:1-3

말씀나눔 | 선하고 아름다운 일

찬 송 | 찬송가 430장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 덕담 | 다같이

| 시편 133:1-3 |

-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 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선하고 아름다운 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서는 가족이 서로 어우러져 한 마음으로 교감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이것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함께하는 순간은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흠뻑 부어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보다 훨씬
더 거룩한 일이며, 헬몬산의 아침 이슬을 대지에 덮어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시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곧, 영
생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나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
이 함께 둘러앉아 한 마음으로 즐겁게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일이요, 하
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자리임을 잊지 말아
야 합니다.

설명절을 맞이하여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어렵게 시간을 내서 모인 자리인 만큼 서로 좋은
덕담만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크게 공감
하며,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
기 바랍니다. 웃음소리가 피어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를 느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